부산 가덕도의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

- 전통어법 ‘숭어들이’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

홍기옥**

〈차 례〉

1. 현장조사와 제보자
2. 숭어들이 관련 어휘 분석
 2.1. 숭어들이 관련 명칭(전체, 부분, 종사자 명칭)
 2.2. 고기 잡기 관련 어휘(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3.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 가덕도의 어촌지역 생활어휘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육소장망(六艘張網), 숭어들이’ 어법에 관련된 어휘를 조사, 수집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숭어들이’와 관련된 어휘를 목록화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어촌지역의 어법(漁法)과 관련된 어휘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숭어들이 어법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덕도에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년층 중심으로 그 방법이 이어져 오고 있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838)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초빙교수

고, 어로 방식에서도 현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어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어휘를 조사,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은 시급한 일일 수 있다.

관련 어휘 조사는 현재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숭어들이' 이용한 어로가 행해지고 있는 부산 가덕도를 중심으로, 숭어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토박이 제보자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숭어들이에 관해 '명칭(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고사 지내기(명칭, 대상, 장소, 행위, 상차림), 관용 표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여 '숭어들이'에 관한 어휘 목록을 체계화 하였다. 조사를 통해 '숭어들이'에 관련된 169개 어휘를 수집하였고, 이 중 136개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한민족언어정보화 방언검색기〉에 수록되지 않은 어형으로 숭어들이 관련 연구에서 발굴되지 않은 어형도 있었다.[1] 또한 현지에서 사용하는 숭어들이에 관련된 연어 구조의 어형과 관용 표현, 관련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또한 수집, 정리하였다. 이는 해당 어휘의 사용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조사를 통해 전통 어로인 숭어들이 관련 어휘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숭어들이, 숭어둘이, 육소장망, 전통 어로 방식, 전통어법, 가덕도 어휘, 지역 어휘

1) 어휘 외에도 관련 음성자료(구술자료 7, 분절음성 167), 영상자료(사진 35, 동영상 3)를 수집할 수 있었다.

1. 현장 조사와 제보자

가덕도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인 육소장망(六艘張網 일명 '숭어들이, 숭어둘이'[2])이 유명하다. 육소장망은 숭어가 들어 올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망대에서 망수가 물 색깔과 물 속 그림자의 변화로 숭어 떼를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6척의 목선에 탄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려 숭어를 잡는 전통적인 어법이다. 숭어는 예민해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목선을 이용해야 하며 목선의 색깔도 눈에 잘 띄는 흰색을 사용하지 않고 검은색을 사용해야 한다.

'숭어들이'는 약 120년 전 통영군 산양리와 거제도 칠천도에서 처음 고안되어 사용되었고, 가덕도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어법으로서 현재 창원, 통영, 남해에 있는 육소장망을 모두 개량된 것으로 전통적인 어법의 형태를 찾을 수 없고 가덕도와 거제도의 육소장망만이 유일하게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숭어들이에 관해 '명칭(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고사 지내기(명칭, 대상, 장소, 행위, 상차림)'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여 '숭어들이'에 관한 어휘 목록을 체계화 하였다.

숭어들이 관련 조사[3]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

---

2) 함정어구를 바다 속에 깔아 숭어를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로 '숭어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물로 숭어를 둘러싼다는 의미로 '숭어둘이'라 하기도 한다. 전문용어로는 '육소장망'이라는 어휘를 쓰지만 지역의 어민, 종사자들은 '숭어들이'라는 명칭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표형으로는 '숭어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어촌지역 생활어 조사 연구 내용 중 필자가 조사한 내용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립국어원(2012)

였다. 관련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사할 범주와 명칭을 나누어 정리하고, 현장조사 후 부족한 내용은 보충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조사 범주는 숭어들이 관련 명칭에서부터 숭어 잡이, 고사 지내기, 관용 표현과 관련 내용을 범주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표 1〉 조사 내용

조사 범주	어휘 항목
숭어들이 관련 명칭	전체명칭, 부분 명칭(배 이름, 배 부속물, 기타),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	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기타
고사 지내기	명칭, 대상, 장소, 시기, 행위, 차림상
관용 표현	범주별 관용 표현

부산시 가덕도의 숭어들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지역 토박이로 숭어들이 어장에서 어로장을 맡고 있는 김관일 씨와 숭어들이 배를 타고 있는 이장 김은배 씨를 주제보자로 하고, 숭어들이 배가 육지로 오면 뒤처리를 하는 서영자, 차선이 씨를 보조 제보자로 하였다.[5]

연구 참조.

4) 본 논문에서는 '부산 가덕도의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 전체 내용 중 이 지역의 대표 어로방식인 '숭어들이' 관련 명칭, 숭어 잡기와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 조사한 '고사 지내기, 관용 표현, 가덕도 어촌생활 기초어휘' 등과 관련된 범주의 어휘는 다음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숭어들이와 관련된 이러한 조사 범주는 문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숭어들이 어업이 행해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더불어 수집된 어휘를 정리하면서 추가로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5)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보자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현재 숭어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 토박이로 오랫동안 숭어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제보자 4인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보자 중 김관일 씨는 숭어들

〈표 2〉 제보자 표

이름	성별	거주지	기타
김관일	남	가덕도 대항리	숭어들이 어로장, 숙부도 어로장
김은배	남	가덕도 대항리	숭어들이 어업 종사, 이장
서영자	여	가덕도 대항리	숭어들이 어업 포함 어업종사
차선이	여	가덕도 대항리	숭어들이 어업 포함 어업종사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6]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였다. 숭어들이 관련 어휘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어휘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관련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 어휘까지 수집하였다. 조사 자료는 트랜스크라이버(Transcriber) 프로그램, 엑셀(Excel) 프로그램, Protege-5.2.0-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정리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비디오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이 어업을 관장하는 어로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제보자이다.

6)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사람들의 삶을 지역의 구성원 시각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체험의 맥락에서 배우려는 특별한 방법론이다. 민속지적 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랜 시간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과 일상생활 연구에 관련된 소규모 단위의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지적 연구 방법은 반복적이고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조사 현장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적인 맥락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에게 질문을 제기하여 발화를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2. 숭어들이 관련 어휘 분석

2.1. 숭어들이 관련 명칭

2.1.1. 전체 명칭

1) 숭어들이, 숭어둘이, 육소장망, 숭어잡이

숭어가 들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망대에서 어로장이 물 색깔과 물 속 그림자의 변화로 숭어 떼를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6척의 목선에 탄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려 숭어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을 '숭어들이, 숭어들이, 육소장망(六艘張網)'이라 한다. 숭어를 그물 안으로 들인다 해서 '숭어들이'라 하기도 하고, 그물로 숭어를 둘러싼다고 해서 '숭어둘이'라 하기도 한다. 여러 어휘 중 가덕도 대항리 주민들은 대부분 '숭어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숭어들이는 음력 1월 보름이 되면 숭어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바다에 고정시켜두고 숭어 떼가 몰려오면 6척의 배가 그물을 들어 올려 숭어를 잡는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 시간이 불과 1분 미만이므로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6척의 배가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숭어들이의 주된 전략이다.

2.1.2. 부분 명칭

숭어들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척의 배가 필요하다. 6척의 배는 각각 이름, 위치, 승선 인원, 하는 일 등이 다르며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성공적인 숭어들이를 할 수 있다. 이 6척의 배는 '밖목선, 안목선, 박장등, 안장등, 밖귀잽이, 안귀잽이'이다. 또한 각 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 부속

물이 있다. 다른 목선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있으며 일반적인 부속물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숭어들이를 위한 부속물도 있다. 숭어들이에 필요한 부분 명칭에 대한 설명에서는 6척의 배에 대한 이야기와 배 부속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6척의 배

(1) 밖목선

'밖목선'은 '밖'+'목선'의 형태로 말 그대로 '밖에 위치한 목선'이다. 여기서 밖은 육지 쪽에서 봤을 때의 위치이다. 즉 육지 쪽이 아니라 바다 쪽에 위치한 배라는 것이다. 다음의 기호 ⊃를 바다에 깔아 놓은 어구로 본다면 밖목선은 위쪽의 터진 입구 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숭어가 들어가는 입구의 위쪽에 위치한 배이다. 밖목선의 크기는 6척의 배 중 가장 크다. 그리고 승선 인원도 가장 많다. 그만큼 밖목선은 숭어들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망대에서 숭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작업 지시를 하는 어로장이 제일 먼저 작업 지시를 내리는 배도 밖목선이다. 밖목선은 어로장이 "봐라", "밖목선 해라"하고 지시를 내리면 빨리 어구의 입구를 막아 그물에 들어온 숭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선 인원도 다른 배에 비해 가장 많은 6명으로 힘을 많이 서야하며, 배 크기도 크다. 예전에는 밖목선에 7명이 승선하였으나 요즘은 숭어들이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 6명이 탄다고 한다. 밖목선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밖목선의 사공은 종사자들 중 서열이 어로장, 부어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 안목선

안목선은 '안'+'목선'의 형태로 말 그대로 '안에 위치한 목선'이다. 여기서 '안'은 육지 쪽에서 봤을 때의 위치이다. 즉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가까이에 위치한 배라는 것이다. 다음의 기호 ⊃를 바다에 깔아 놓은 어구로 본다면 안목선은 아래쪽 터진 입구 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밖목선과 안목선은 터진 입구 쪽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숭어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밖목선이 빨리 줄을 당겨 어구를 모으는 것처럼 안목선도 함께 그물을 좁히면 위의 기호에서 터진 입이 오므라들어 타원형처럼 되고 숭어는 어구에 갇히는 것이다. 그래서 숭어둘이에서 숭어가 어구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밖목선과 안목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안목선은 육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산에서 숭어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로장, 부어로장의 식사를 챙겨주는 배이기도 하다.

안목선의 승선 인원은 4명이다. 예전에는 5명이었으나 줄고 현재는 4명이 배를 탄다. 그리고 안목선에는 닻이 없는데 이는 배를 육지 가까이 바위에 묶어두므로 닻은 필요가 없다고 한다.

(3) 밖장등

밖장등은 '밖'+'장등'의 형태로 육지 쪽이 아니라 바다 쪽에 위치한 목선으로 기호 ⊃를 어구의 위치로 본다면 밖목선의 옆에 위치하는 배이다. '장등'은 제보자의 말로는 '밖장등'은 그물의 '등',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장등'이라 하는데 이는 '등'의 경상도 방언이다. 밖장등에는 1명의 선원이 탄다. 밖장등은 밖목선이 어구 입구를 막을 때 그물을 잡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4) 안장등

안장등은 '안'+'장등'의 형태로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쪽에 위치한 목선으로 기호 ⊃를 어구의 위치로 본다면 안목선의 옆에 위치하는 배이다. 따라서 밖장등과 안장등은 밖목선, 안목선 옆에 위치하며 둘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배이다. '장등'은 제보자의 말로는 '안장

등'은 그물의 '등',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장등'이라 하는데 이는 '등'의 경상도 방언이다. 밖장등에는 2명의 선원이 탄다. 안장등은 밖목선이 어구 입구를 막을 때 그물을 잡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안장등에는 안목선과 마찬가지로 닻이 없는데 이는 배를 육지 가까이 바위에 묶어두므로 필요가 없다고 한다.

(5) 밖귀잽이

밖귀잽이는 '밖'+'귀'+'잡-'+'-이'의 형태로 '밖에서 귀 부분을 잡아주는 배'이다. '귀'는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구의 귀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귀잡이'가 'ㅣ' 모음 역행동화의 영향으로 '귀잽이'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밖귀잽이는 바다 쪽에 위치하고 어구의 귀 부분,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배이다. 밖장등의 옆 자리이다. 밖귀잽이에는 3명의 인원이 승선하는데 예전에 비해 1명이 줄었다.

(6) 안귀잽이

안귀잽이는 '안'+'귀'+'잡-'+'-이'의 형태로 '밖에서 귀 부분을 잡아주는 배'이다. '귀잽이'라는 말은 '밖귀잽이'와 같은 형태이다. 따라서 안귀잽이는 육지 쪽에 위치하고 어구의 귀 부분,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배이다. 안장등의 옆 자리이다. 안귀잽이에는 3명의 인원이 승선하는데 예전에 비해 1명이 줄었다.

(7) 논마이

숭어들이에서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밖목선과 안목선이 어구의 입구를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나머지 배들은 이후에 작업을 함께 한다. 이처럼 밖목선, 안목선 외에 후에 움직이는 배들을 '논마이'리고 한다. 따라서 논마이는 '밖장등, 안장등, 밖귀잽이, 안귀잽이'가 포함된다.

(8) 운반선/동력선/발동기/관리선

운반선은 위에 언급한 6척의 배 외에 숭어들이를 도우는, 유일한 발동선이다. 숭어들이를 해 고기를 잡을 때는 예민한 숭어 때문에 모터 소리가 나지 않는 목선을 이용하지만 작업 전 6척의 배를 끌고 가거나, 잡은 숭어를 운반, 작업 후 다시 배를 끌고 올 때 이용한다. 숭어를 많이 잡으면 몇 만 마리도 잡으므로 운반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운반선을 '발동기, 동력선, 관리선'이라 한다.

2) 배 부속물

(1) 좇/좇대/걸이

숭어들이는 조업을 하지 않을 때는 큰 그물인 어구를 바다에 깔아 놓는다. 그 깔아놓은 어구는 조업을 시작하면 작업을 하는 6척의 배와 연결해 숭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숭어를 기라다리는 동안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좇, 좇대, 걸이'이다. 다른 목선에는 없는 '좇대'는 남성의 성기를 닮아 길쭉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요즘 들어서는 순화된 어휘인 '걸이'라는 말을 쓴다. 말 그대로 그물을 배에 걸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숭어가 그물에 들어와 어로장의 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좇대'를 빼는 작업이다.

(2) 닻도

배에 줄을 감는 곳으로 숭어들이 배에는 올림줄과 비음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줄을 묶어두는 곳이다. 올림줄은 배의 앞인 이물에 묶이는 줄이고 비음줄은 뒷부분인 고물에 묶이는 줄이다. 숭어잡이가 시작되면 이 이음줄과 비음줄을 잡아당겨 그물을 조이게 하는 것이다.

(3) 노

물을 헤쳐 배를 나가게 하는 도구로 안목선과 안장등에 있는 노는 배를 육지 가까이 바위에 묶을 때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때도 사용하며 작업 후 배들이 운반선으로 이동할 할 때도 사용하는 도구이다.

(4) 노꾸리

목선에 물이 많이 들게 되면 배가 무거워진다. 그렇게 되면 배가 점점 무거워져 가라앉게 되는데 그때 노꾸리에 발동선의 엔진을 연결해 배를 원 위치로 배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3) 기타

숭어들이에는 배와 배의 부속품 외에도 조업에 연관된 것이 있다. '망대'는 어로장이 숭어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곳이고 올림줄, 비음줄은 배와 어구를 연결해주는 줄, '망바/망뚜리'는 망대와 배를 연결하는 줄이다.

(1) 망대/망

숭어들이의 작업 지시를 하는 어로장은 숭어들이 어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서 숭어를 기다린다. 망대는 '망'+'대'의 합성어로 '망을 보는 대'로 사방을 바라 볼 수 있게 만든 곳이다. 숭어들이 어장 옆 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로장과 부어로장이 숭어를 기다리는 곳이다. 간단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 정도이다.

(2) 바, 망바/망뚜리

'바'는 밧줄과 같은 줄을 이르는 말이다. 앞서 말한 망대와 바다

에 쳐져 있는 어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망대와 연결된 줄을 '망바, 망뚜리'라 한다. 숭어잡이 작업이 시작되면 밖목선과 안목선이 어구의 입구를 죄는데 그때는 멀리 떨어진 망대에서서도 힘을 보탠다. 그래서 망대에서도 잡아당길 수 있는 줄을 이어 놓았는데 그 줄 이름이 '망바, 망뚜리'이다. '망바'는 '망'+'바'의 형태로 망에 연결된 줄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1] 망대



[사진 2] 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어장

(3) 올림줄/올림

숭어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6척의 배를 숭어를 기다리는 동안 바다에 고정해놓아야 한다. 고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닻'을 이용하는데 '안목선과 안장등'은 닻을 이용하기 보다는 바다 옆 바위에 줄을 묶어 둔다고 한다. 이 외의 배는 닻을 사용하는데 이물과, 고물에 닻을 연결해 배를 정박한다. 이때 이물과 연결된 닻의 줄을 '올림줄'이라 한다. 배의 앞부분에 연결된 닻이므로 올림줄을 당겨 닻을 올리면 배 뒤에 연결된 비음줄도 따라 올라 온다고 한다.

(4) 비음줄/비음

'비음줄, 비음'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닻줄로 안장등,

밖장등을 제외한 밖목선, 안목선, 밖귀잽이, 안귀잽이에 한 줄씩 있다.

(5) 도래

'도래'는 바퀴에 홈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움직이는 장치인 '도르래'를 말한다. 망대의 어로장과 부어로장의 식사는 안목선에서 담당하는데 안목선과 망대가 있는 산까지는 거리가 멀므로 도르래를 이용해 음식을 나른다고 한다. 예전에는 안목선 선원이 직접 망대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2.1.3. 종사자 명칭

1) 어로장/망쟁이/망장이/망수/망전/망이/망반장

어로장은 숭어들이 조업을 총관장하는 사람이다. 오래된 숭어잡이 경험을 갖고 있어 망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멀리 숭어 떼가 보인다. 숭어가 어구로 들어오면 망대 아래의 6척의 배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다. 어로장의 "봐라" 한 마디로 숭어잡이는 시작된다. 어로장은 다양하게 불리는데 '망전, 망쟁이, 망장이, 망수, 어로장, 망이, 망반장'이라 한다. 예전에는 망을 지킨다 해서 '망쟁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어로장'으로 많이 부른다.

2) 부어로장/부망쟁이/부망수

부어로장은 어로장 밑에 있는 서열로 어로장의 일을 돕는다. 어로장과 함께 망대를 지키기도 하고, 고기가 없으면 산에서 내려와 먼 거리를 한 번 돌아보면서 숭어 떼를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 부어로장을 '부망쟁이, 부망수'라 부르기도 한다.

3) 첫째바/사공, 상바

여섯 척의 배에 타는 선원은 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밖목선은 6명, 안목선은 4명, 안장등 2명, 밖장등 1명, 안귀잽이, 밖귀잽이 3명씩이다. 이는 예전의 인원보다 한 명씩 줄어든 인원이다. 선원은 각각의 배에서 정해진 위치에 있는데 위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들의 명칭은 배에서 그물과 연결된 어떤 줄을 잡아당기는지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밖목선에는 고물에서부터 '사공(첫째바), 둘째바, 셋째바, 넷째바(걸이바), 오동, 이물무상'이라 부른다. 안목선은 배의 앞 부분인 이물에서부터 '이물무상, 둘째바, 걸이바, 사공'이라 하고 안귀잽이, 밖귀잽이에 타는 선원은 '이물무상, 하장, 사공'이라 한다.

첫째바는 배의 뒷부분인 고물(꼴)에 있는 사람이다. '첫째'+'바'의 합성어인데 '바'가 '밧줄, 줄'의 의미이므로 '첫째줄'이라는 의미이다. 말할 때는 '바'는 어두경음화된 '빠'로 말한다. '첫째바'는 배와 그물에 연결된 첫째 줄을 잡아당기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밖목선의 첫째바는 고물에서 줄을 당기는 거리가 멀고 제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힘이 세고 줄을 제일 잘 당기는 사람을 배치한다. 그래서 제일 숙련된 사람을 첫째바로 정하므로 사공이 첫째바를 한다. 첫째바인 사공이 잡아당기는 줄을 '상바'라 한다. 따라서 숭어들이 종사자의 서열은 '어로장-부어로장-밖목선 사공(첫째바)'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둘째바

둘째바는 배의 고물에서 두 번째로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사공인 첫째바 다음에서 줄을 잡아당긴다.

5) 셋째바

셋째바는 배의 고물에서 세 번째로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둘째바 다음에서 줄을 잡아당긴다.

6) 넷째바/걸이바/하장

넷째바는 배의 고물에서 네 번째로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셋째바 다음에서 '걸이, 좇'이라는 그물을 고정해 놓는 고정목을 빼는 사람이므로 '걸이바'라 부르기도 한다. 넷째바는 보통 배의 하장이 담당하는데 '하장'은 배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오동바/오동

오동바는 넷째바 다음에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 밖목선에서 배의 제일 앞인 이물에 있는 오동과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사공과 마찬가지로 고기가 도망치지 않게 빨리 줄을 잡아당겨야 하는데 오동바가 있는 자리에는 고리가 있어 줄을 고리에 풀리지 않게 단단히 동여매는 장치가 있다. 이를 '오동홀치기'라고 하였다. '오동바'는 오동과 연결된 줄을 의미하기도 하고 줄을 잡아당기는 선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오동'은 돛을 제외한 배의 높이를 의미한다. 오동이 배의 이물에 위치해 있으므로 배의 높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8) 이물무상

안목선, 안귀잽이, 밖귀잽이에서 배의 앞인 이물에 위치한 선원을 이르는 말이다.

이상의 숭어들이 관련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숭어들이 관련 명칭

범주	조사 어휘		
숭어들이 관련 명칭	전체 명칭	숭어들이, 숭어둘이, 육소장망, 숭어잡이	
	부분 명칭	6척의 배	밖목선, 안목선, 밖장등, 안장등, 밖귀잽이, 안귀잽이 논마이(밖목선, 안목선 외의 뒤에 움직이는 배) 운반선/동력선/발동기/관리선
		배 부속물	좆/좇대/걸이 닻도, 노, 노꾸리
		기타	망대/망, 바, 망바/망뚜리(망대와 배를 연결하는 선) 올림줄/올림(이물), 비음줄/비음(고물) 도래
	종사자 명칭	어로장/망쟁이/망장이/망수/망전 부어로장/부망재이/부망수 첫째바/사공, 상바, 둘째바, 셋째바, 넷째바/걸이바/하장 오동바/오동, 이물무상	

2.2. 고기 잡기

본격적인 숭어들이 조업은 음력 1월 보름 무렵에 시작된다. 망대 아래 고사장에서 돌아가신 어로장들에게 고사를 지내고 숭어들이 어장에 어구를 치는 '사개 치기' 작업을 하면서 5월 무렵까지 숭어들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2.2.1. 시기

1) 계절

숭어들이 작업은 음력 1월 보름 무렵에 시작된다. 즉 양력 3월부터 양력 5월 무렵까지 3개월 정도 작업이 이어진다.

2) 물때

숭어들이 작업에 적당한 물때는 물살이 조금 빨라지는 때이다. 물살이 느리면 물이 깨끗해서 고기들이 장애물을 다 알고 피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살이 빨라지는 사리때가 좋은데 '다섯물에서 열세물' 정도가 좋다. 가덕도에서는 '사리때'를 '시때'라 한다. 물살이 느려지는 조금때인 '열세물에서 네물' 사이는 숭어들이 작업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3) 바람

숭어잡이 하기에 좋은 바람은 동풍이다. 또한 아침에 북동풍이 불어도 숭어들이 조업에 도움이 된다. 가덕도에 아침에 북동풍이 불면 이 바람이 오전 10시 넘어가면 동에서 부는 동풍으로 불기 때문이다. 동풍을 가덕도에서는 '샛바람, 정새바람'이라 한다. 그리고 북동풍은 '높새, 노불'이라 하는데 북동풍이 부는 것은 '북동풍하다, 노불 논다'라 표현한다.

4) 시간

음력 1월 보름 무렵 숭어들이 조업을 시작하면 물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새벽 5시 정도가 되면 사개를 쳐 놓은 숭어들이 어장에서 조업이 시작된다. 5시 정도에 어장에 나가 숭어가 없는 날은 일찍 마을로 돌아오고 숭어 떼가 어장 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숭어가 어구에 들기를 기다린다. 어떤 날은 밤까지 기다림이 계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업을 나가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진다. 숭어들이 하는 시기를 크게 '초살, 중살, 막살'로 나누고 음력 1월 보름 무렵인 3월에는 '초살'이라 해서 새벽 다섯

시에 나가고 4월 정도 되는 '중살'이 되면 작업 시간이 더 빨라진다. 고기들의 움직임이 그 만큼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살이 되면 새벽 4시 정도에는 조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숭어들이 작업을 종료하는 '막살' 시기인 5월이 되면 숭어 떼의 양도 점점 줄어들어 한 해의 숭어들이를 마감한다. 이렇게 숭어들이를 마감하는 것을 '시마이 하다, 시마이 넣다'라 한다. '시마이(しまい, 仕舞い)'는 일본말로 어촌지역에서는 어획물이나 어로 행위 등에서 일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2. 위치

매년 숭어들이 어장은 변동이 없다. 숭어들이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덕도 대항리 숭어들이 어장도 16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어장의 위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숭어들이 어구를 치는 자리는 바닥에 바위 같은 어초가 있으면 쳐 놓은 그물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어구를 치는 바닥은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하다.

2.2.3. 작업 과정

1) 사개 놓다/사개 치다/사개 막다/입낭하다/어구 앉혀 놓다/닻을 놔서 고정시키다

숭어들이 작업은 음력 1월 보름 무렵 숭어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사개'를 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개'는 여섯 척의 목선이 서있는 자리를 닻을 놔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섯 척의 배가 작업 시 있는 자리를 고정하는 작업이다. 이와 함께 바닥에는 그물을 앉혀 두어 작업을 하러 가면 작업 배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바닥에 가라앉혀 둔 그물과 배를 연결해 숭어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당겨 고기

떼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숭어 어장에 각 배의 자리를 정해두고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사개'라 하고 이는 '사개 놓다, 사개 막다, 입낭하다, 어구 앉혀 놓다, 닻을 놔서 고정시키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중 '사개 막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입낭(入囊)하다'는 '그물을 바다에 넣다'라는 말이다.

2) 배 닻 차고 나가다

사개를 치고 오면 다음 날부터 새벽 5시경이 되면 어장으로 나가 숭어 떼를 기다린다. 여섯 척의 배들이 함께 동력선에 이끌려 어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배들이 출발할 때의 모습을 '닻 차고 나가다'라고 표현하였다.

3) 좆대 꿰다, 어장 막다, 배 고정시키다

여섯 척의 목선에 있는 '좆대'는 배에 그물을 꽉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남성의 생식기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숭어잡이가 시작되면 그물을 잡아 당겨 올려야 하므로 이 좆대를 빼고 신속히 그물을 올려야 한다. 이처럼 숭어잡이가 시작되기 전 닻을 내리고, 바다에 가라앉힌 어구와 배를 고정해두는 좆대를 꿰어 배와 그물의 자리를 고정시켜야 한다.

4) 바위 가에 묶다/가로 붙이 놓다, 작대기로 밀다

숭어들이 작업을 가서 여섯 척의 배를 고정할 때 1차적으로 닻과 좆대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안목선'과 '안장등'은 육지와 가까우므로 닻을 내리지 않고 육지의 큰 바위에 배를 묶어둔다. 배를 육지 쪽에 붙일 때는 세게 부딪히면 배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작대기(노)로 밀어가면서 배가 바위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절을 해가면서 바위에 묶어야 한다.

5) 바위 타다, 망대에서 내려다 보다

배 여섯 척이 바다에 고정을 시켜 두면 이제 기다림은 시작된다. 어로장과 부어로장은 산을 타고 망대에 올라가서 숭어 떼들이 몰려 오는지를 망대에서 내려다 보고 기다린다.

6) 숭어 기다리다

숭어들이는 대부분의 조업 시간을 숭어 떼를 기다리면서 보낸다. 큰 소리를 내면 숭어 떼가 알아차리므로 조용히 숭어들이 어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선원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하면서 어로장의 신호를 기다린다.

7) “봐라”, “밖목선 해라”, “안목선 해라”, “같이 해라”

망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어로장이 붉은 빛의 숭어 떼가 어구 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이 보이면 드디어 작업지시를 내린다. 첫 마디가 “봐라”이다. ‘봐라’라고 지시를 내리면 6척의 배는 일시에 긴장을 하며 어로장의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이제 고기가 어장 안으로 들어가면 고기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는 “해라”라는 다음 작업 지시로 이뤄진다. 어로장이 “해라” 하고 다음 지시를 내리면 먼저 밖목선이 움직인다. 밖목선의 좆대를 빼고 재빨리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조금만 늦어도 숭어잡이를 망칠 수 있으므로 최초 작업 개시 배인 밖목선의 작업이 중요하다. 밖목선의 작업에 이어 안목선도 함께 그물을 들어

올려 숭어가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 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두 배에 이어 나머지 여섯 척의 배들도 어로장이 "같이 해라"하면 작업을 일사불란하게 함께 한다. 조금만 늦어도 고기들이 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밖장등과 안장등은 그물을 들어 올려주고 밖귀잽이와 안귀잽이도 그물을 조아 준다.

8) 주 땡기다, 올리삐다, 딱 쪼아뿌다, 괴기 몰아 이빠이 올리다, 망쟁이 땡기다, 한참 대차게 놀다

숭어 떼가 어장 안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 한 번에 그물을 들어 올려 고기를 가두는 작업이 중요하다. 밖목선을 선두로 6척 배가 모두 '그물 죄기'를 하면 멀리 망대에 있는 '어로장'과 '부어로장'도 망바를 당겨 힘을 보탠다. 이를 표현하는 어휘로는 '그물을 땡기다, 한참에 땡기다, 빨리 올리삐다, 이빠이 올리다, 딱 쪼아뿌다, 망쟁이 땡기다' 등이 있다. '그물을 당겨 올린다'는 의미이다. 이런 그물 올리기 작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차게 놀다'라고 표현하였다.

9) 뒷배는 설설하다

어장의 입구를 막기 위해 밖목선과 안목선이 먼저 작업을 시작해도 4척의 뒷배는 조금 여유가 있다. 어로장이 다시 "같이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뒷배들은 작업에 천천히 가담한다는 말이다. 이를 '뒷배는 설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설설하다', '살살하다'와는 의미 차이가 있다. '일을 설설하다'라는 표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표준어 '설렁설렁하다'의 의미와 연관이 된다.

10) 중간 잡아주다/들어 주다

밖목선과 안목선이 어구를 입구를 막기 위해 그물을 조아주는 작업을 할 동안 '안장등', '밖장등' 배는 중간에서 그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작업을 '중간 잡아주다, 들어 주다'라 표현한다.

11) 퍼 올리다/담아 올리다, 고기 뜨다, 동두리 하다

그물을 조아 고기가 도망가지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수확 작업을 한다. 그물에 있는 숭어를 배에 싣는다는 말이다. 이를 '퍼 올리다, 담아 올리다, 고기 뜨다'라 표현한다. 또한 잡힌 숭어 떼가 많으면 떠 올리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동두리'라는 그물을 쓴다. 배에 있는 그물로 잡힌 고기를 많은 분량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는 그물로 큰 그물에 잡힌 고기를 작은 그물로 떠 올린다는 것이다. 동두리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떠올릴 때는 여러 사람이 동두리 그물로 숭어 떼를 딱 싸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한 다음 들어 올리는데 숭어가 많이 잡힐 때는 이 동두리 작업 여러 번 반복한다. 이처럼 동두리 그물을 써 고기를 떠올리는 작업을 '동두리 하다'라 표현한다.

12) 알맹이 하나 내롱다, 주산 알 내려 가다

잡은 고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할 때는 '산'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주산 알을 가지고 만든 고기 셀 때 사용하는 도구로 스무 마리에 주산 알 하나를 내린다. 숭어는 스무 마리를 '열'이라 하고 100마리를 '동', 1000마리를 '접'이라 한다.

13) 다 버리삐다/물에 보내삐다

잡은 숭어 중에서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없는 것은 바다에 버린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숭어가 잡혀도 일부는 버린다. 숭어가 많이 잡혀 어판장에 내놓으면 그만큼 숭어 값이 떨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숭어 이상이 잡히면 다시 바다로 돌려 보내고 다음날 와서 다시 잡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는 숭어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14) 배 채수하다, 고기 운반하다, 철수하다

그물에 갇힌 고기를 다 잡아 올리면 이제 그날의 숭어들이 작업은 끝난다. 이제 잡은 고기를 어판장으로 옮기는데 이때는 함께 다니는 동력선을 이용해 운반한다. 동력선은 여섯 척의 작업선을 항구로 이동시키고 잡은 고기도 운반하는 것이다. 작업이 끝나면 어로장의 지시로 항구로 철수하는 것이다.

15) 시마이 하다/시마이 넣다

음력 1월 보름경에 시작된 숭어들이는 양력 5월 경에 한해 숭어들이를 마감한다.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힌 그물도 걷어오고 6척의 목선도 다음 해를 위해 공동시설에 보관해둔다. 한해의 숭어들이를 정리하는 것을 '시마이 하다', '시마이 넣다'라 표현하는데 '시마이'는 일본어로 '마치다'라는 의미이다.

2.2.4. 어획물

1) 종류

(1) 숭어, 암숭어, 수숭어, 모칠/모찌, 중부리, 대숭어, 전어, 감성돔

숭어는 일반적으로 '숭어'라 통칭해서 부른다. 하지만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크기가 작은 숭어를 '모찌, 모칠'이라 하고 중간 정도의 숭어는 '중부리', 다 자란 숭어를 '대숭어, 숭어'라 한다. 그리고 암컷은 '암숭어', 수컷은 '수숭어'라 한다. 숭어 명칭이 크기와 성별에 따라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숭어들이 어장에는 주로 숭어를 잡지만 그 외의 물고기가 들어오기도 한다. 예전에는 전어나 감성돔도 몇 백 마리씩 잡은 적이 있다고 한다.

(2) 초사리 고기, 한사리 고기, 늦사리 고기, 망중사리 고기[7]

숭어는 잡히는 시기에 따라 초사리 고기, 한사리 고기, 늦사리 고기, 망중사리 고기로 나눈다. 초사리 고기는 3월~3월 말까지 잡히는 고기로 숭어의 형체는 나타나지 않고 물색의 변화만으로 고기의 유무를 알 수 있다. 한사리 고기는 3월 말~4월, 5월까지 잡히는 고기로 이때에도 숭어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늦사리 고기는 5월 중순~6월 중순에 잡히는 고기로 숭어의 형체가 드러난다. 망중사리 고기는 망중이 지나면 보리가 숨이 갈 시기로 이때까지 숭어가 들어 온다. 이러한 명칭은 숭어의 명칭이 시기에 따라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통통하다, 셀쭘하다

암숭어와 수숭어의 생김새는 조금 다르다. 암숭어는 몸통이 조금 통통한 편이고 수숭어는 몸통이 암숭어에 비해 통통하지 않고 길이감이 더 있는 편이다. 이를 '통통하다, 셀쭘하다'라 표현하였다.

---

7) 국립민속박물관, 『경남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209쪽 참조.

2.2.5. 단위

1) 마리, 열, 동, 접

숭어를 세는 기본 단위는 '마리'이다. 스물 마리를 '열'이라 해산의 알맹이 하나를 내리는데 백은 '동', 1000은 '접'이라 한다.

2.2.6. 도구

1) 산/잡는 산/주산 알

잡은 숭어를 세는 도구는 '산, 잡는 산'이라 한다. 이는 주산 알맹이를 줄에 끼워 만든 것으로 숭어 스무 마리에 주산 알맹이 하나를 내린다.

2) 어장 꾸미는 도면

숭어들이 어장을 만들 때는 어구나 배의 위치를 정해서 사개를 친다. 사개를 치기 위해 어로장은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를 '어장 꾸미는 도면'이라 하고 이를 보고 사개를 치고, 어구가 찢어지면 보수도 한다.

3) 물차

고기를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물차에 실어 판매처에 보낸다. 신선한 숭어를 거래하기 위해 물차에 1000마리 정도를 실어 보낸다.

2.2.7. 금기

숭어들이 어업에도 안전하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이 있다.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 금기 사항을 아주 엄격히 지켜 조업을 하였지만 요즘은 선원들이 일이 힘든 숭어들이 배를 많이 타지 않으려고 해 금기 사항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한다.

1) 개고기 안 먹는다

꼭 지켜야 할 금기 사항으로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2) 조업 전에 짐승 안 잡는다

짐승을 잡는 것도 부정을 타 조업이 원만치 않게 된다고 믿는다.

3) 조업 배에 여자 안 태운다

조업하는 배에 여자를 태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부정을 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고사를 지낼 때는 음식을 담당하는 여자들을 배에 태워서 고사장까지 데리고 갔다고 한다.

2.2.8. 기타

1) 고기가 뭉쳐 오다, 붉은 빛을 내다/ 붉은 색이 나다, 발 앞에 놀다

숭어는 떼를 지어 이동한다. 뭉쳐서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에

있는 망대에서 숭어 떼를 보면 바다가 붉은 빛을 낸다고 한다. 어로장은 이를 보고 숭어 떼가 어장 쪽으로 오는 것을 파악한다. 숭어가 어장 앞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발 앞에 놀다'라 표현한다.

2) 그물 째지다/ 찢어진다, 고기 다 빠지다, 튀 넘어 가다

숭어들이 조업을 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숭어가 다 빠져 나가 버린다. 그래서 숭어들이 어장을 만들 때 바다 바닥에 바위가 없이 평평한 곳에 그물을 쳐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고기들이 도망가지 못 한다. 또한 조업 중에도 그물이 찢어지면 조업을 망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숭어 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숭어가 배를 튀어 넘어 도망가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3) 고기가 빛을 보면 나가뿌다, 배를 새까맣게 칠하다, 물소리가 착착나다, 나무 쓰다

숭어는 예민해서 빛을 보거나 소리가 나면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숭어들이를 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배는 하얀색처럼 밝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 고기가 빛을 보면 어장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숭어들이 배 겉 부분은 검은 색으로 칠한다. 또한 숭어는 소리에도 민감하므로 배의 재질이 요즘 많이 쓰는 FRP 재질도 이용하지 못 한다. 이 재질로 만든 배는 파도가 닿으면 목선에 비해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숭어들이 배는 여전히 나무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4) 빠짝빠짝 하얀 시그리를 낸다, 빠딱빠딱 하다

숭어 떼는 밤에는 하얀 빛을 낸다고 한다. 떼를 지어 다니기 때

문에 여러 마리가 함께 움직이고, 꼬리지느러미를 움직여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이다. 이를 제보자들은 '시그리를 내다, 빠딱빠딱 하다'라 표현하였는데 이를 보고도 숭어 떼의 움직임을 파악해 밤에도 숭어잡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시그리'는 달빛에 고기비늘이 반사되어 생기는 빛일 것이라 하였다.

이상의 고기 잡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고기 잡기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고기 잡기	시기	계절	음력 보름경, 양력 5월, 3개월
		물때	다섯물에서 열세물, 사리때, 조금때, 열세물에서 네물
		바람	동풍, 샛바람, 북동풍, 노불, 높새바람, 북동풍 한다, 노불 논다.
		시간	새벽 5시 정도, 밤, 초살, 중상, 막살
	위치	바다 밑에 아무 것도 없는 곳, 매년 같은 자리	
	행위	1) 사개 놓다, 사개 치다, 사개 막다, 입낭하다, 어구 앉혀 놓다, 닻을 놔서 고정시키다 2) 배 닻 차고 나가다 3) 좆대 꿰다, 어장 막다, 배 고정시키다 4) 바위 가에 묶다, 가로 붙이 놓다, 작대기로 밀다 5) 바위 타다, 망대에서 내려다 보다 6) 숭어 기다리다 7) "봐라", "밖목선 해라", "안목선 해라", "같이 해라" 8) 주 땡기다, 올리삐다, 딱 쪼아뿌다, 괴기 몰아 이빠이 올리다, 망쟁이 땡기다, 한참 대차게 놀다 9) 뒷배는 설설하다 10) 중간 잡아 주다, 들어 주다 11) 고기 퍼 올리다, 고기 담다, 고기 뜨다, 동두리 하다 12) 알맹이 하나 내롱다, 주산 알 내려 가다 13) 다 버리삐다, 물에 보내삐다 14) 배 채수하다, 고기 운반하다, 철수하다 15) 시마이 하다, 시마이 넣다	
	어획	종류	숭어, 암숭어, 수숭어

	물		모칠/모찌(小), 중부리(中), 숭어(大), 대숭어 전어, 감성돔
		상태	통통하다, 셀쭘하다
	단위		1=마리, 20마리=열, 100마리=동, 1000마리=접
	도구		주산알/산/잡는 산, 어장 꾸미는 도면, 물차
	금기		개고기 안 먹는다, 짐승 잡지 않는다, 여자 배에 안 태운다
	기타		1) 고기가 뭉쳐 오다, 붉은 빛을 내다/붉은 색이 나다, 발 앞에 놀다 2) 그물 째지다/찢어진다, 고기 다 빠지다, 튀 넘어 가다 3) 고기가 빛을 보면 나가뿌다, 배를 새까맣게 칠하다, 물소리 착착 나다, 나무 쓰다 4) 빠짝빠짝 하얀 시그리를 낸다, 빠딱빠딱 하다

3.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 가덕도의 어촌지역 생활어휘 중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어로 방식인 '가덕도 숭어들이'에 관련된 어휘를 조사, 수집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본 조사는 가덕도 숭어들이 어업에 종사 중인 토박이 제보자 4명을 선정하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질문지를 이용해 어촌지역 생활어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은 질문지법과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기초어휘 항목은 물론 관련된 확장 어휘까지 수집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가덕도의 숭어들이에 관한 조사는 숭어들이 과정을 범주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숭어들이에 관해 '명칭(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고사 지내기(명칭, 대상, 장소, 시기, 행위, 차림상)' 등의 내용 중 '명칭', '고기 잡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숭어들이'와 관련해 수집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5〉 수집 자료

조사어휘[8]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9]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169	136	7/7	167	35	3

본 연구는 경상남도 부산 가덕도의 숭어들이 어법에 관한 어휘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범주의 어휘와 타 지역 숭어들이 관련 어휘와의 비교 연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어로 방식인 '숭어들이' 관련 어휘를 연구가 우리말의 외연을 넓히고, 어로 방식과 관련된 어휘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홍기옥,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국립국어원, 2010.
홍기옥 외,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0.

2. 논문

이기욱, 「한국의 도서문화 –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11집, 1993, pp. 375-416.
홍기옥, 「경남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

8) 조사어휘 항목 수는 숭어들이 관련 전체 어휘 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숭어들이 관련 명칭(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에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9) 미등재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한민족언어정보화 방언검색기〉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 수를 의미한다.

문학』58호, 2011, pp. 273–299.
홍기옥, 「원시 어로방식 '돌살' 관련 어휘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75호, 2015, pp. 158–186.
홍기옥, 「원시 어법 '죽방렴' 관련 어휘 연구 – 죽방렴 관련 명칭과 제작, 보수하기 관련 어휘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81호, 2017, pp. 59–96.

3.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 필기획, 1996.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정치망어업』, 1984.
나승만 외 7인, 『다도해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3.
이근우 외 4명, 『한국 수산지』, 서울: 새미, 2010.
이병기・박승원・김진건, 『연근해어업개론』, 태화출판사, 1989.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2.
주강현, 『관해기 1–3』,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6.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한국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1–5』, 서울: 해양수산부, 2002.
홍기옥 외,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1.
홍기옥 외,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2.

(**투고일**: 2018. 1. 31 **심사완료일**: 2018. 3. 15 **게재확정일**: 2018. 3. 21)

홍기옥
소속: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38004]
전자우편: gohong@u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Living Vocabulary in the Fishing Village of Gadeokdo in Busan

- Focusing on the Related Vocabulary of 'Catching mullets' in Traditional Language -

Hong, Gi-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llect related vocabularies related to the methodology of 'Catching mullets' which are maintained in the traditional way in Korea. It can be regarded as a basic work for establishing a vocabulary related to the pronunciation of fishing villages by cataloging vocabularies related to 'Catching mullet' and building a related database (DB).

The related vocabulary survey was conducted by choosing the native fishermen who are engaged in fishery, mainly in Busan Gadeokdo, where fishery using 'Catching mullet fish' is being performed.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names of Catching mullets (full name, partial name, employee name), catching (timing, location, behavior, catch, unit, tool, taboo), And 'idiomatic expressions', and organized the vocabulary list of 'Catching mullets'. Through the survey, 169 vocabularies related to 'Catching mullets' were collected, 136 of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or the Korean dialect of dialect of Korean language.

Key words: mullet, Catching mullet, traditional fishery method, traditional language, gagokdo vocabulary, local vocabulary